

수출규제 관련 일일동향(11.19~20)

1. WTO 2차 양자협의를 관련

□ [동향]

-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, 한일 양국 통상 대표가 11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WTO 2차 양자협의를 실시하였지만,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종료
- 한국 대표단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WTO 협정 위반으로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, 수출규제 철회를 요구하였지만 일본이 안보상 이유로 이를 거절¹⁾
- 보도에 의하면 한국 정부는 패널 설치 방안을 포함, 다음 절차를 검토하겠다는 입장

□ [일본 정부 동향]

- 일본 경제산업성은 20일 공식 홈페이지에 “일본은 본 조치가 수출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용을 위한 것으로 WTO 협정 위반이라는 지적은 전혀 맞지 않으며, 금수조치가 아니라는 점과 공급사슬에 미치는 영향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재차 주장했다”고 설명²⁾
- 일본 측 대표인 쿠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통상기구본부장은 “2회째 협의에서 서로 간의 이해는 깊어졌으나, 한일 양측이 기존의 주장을 바꾼 것은 아니다”라고 협의 결과를 설명
- 또한 “향후 진행 상황은 협의를 요청한 한국이 검토할 것이며, 일본은 세 번째 협의 요청이 있으면 검토할 것이고, 패널 설치를 요구한다면 그에 맞게 대응할 것”이라고 발언³⁾

1) 「WTO 한일 2차 양자협약 성과없이 종료...재판절차 돌입?」 『KBS NEWS』 (2019. 11. 20).

2) 経済産業省, 「大韓民国向け輸出管理の運用の見直しについてWTO協定に基づく二国間協議を実施しました」 (2019. 11. 20), 홈페이지: <https://www.meti.go.jp/press/2019/11/20191120004/20191120004.html>

3) 「日韓協議は平行線 韓国がWTO提訴に踏み切るかが今後の焦点」 『NHK NEWS WEB』 (2019. 11. 20)

□ [일본 언론 동향]

- 한국 측이 두 번째 양자협의를 요청한 것과 관련하여 일본 측에서는 “패널 설치 전 일본의 반응을 많이 듣고 싶은 것일 뿐”, “일본과 충분히 협의하여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하고 싶은 것일 뿐”이라는 견해가 많다고 아사히신문은 보도⁴⁾
- 또한 양자협약이 19일에 실시된 것과 관련, 지소미아 종료(23일 0시)를 앞두고 동 협정의 연장 조건으로서 수출규제를 재검토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
- 한편 다음 양자협약과 관련, 제1차 협의 당시에는 한국이 다음 협의를 제안하였지만 이번에는 요청이 없었다는 점, 이미 WTO 제소 후 60일이 경과한 점을 들어 패널 심리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들도 존재⁵⁾

4) 「輸出規制強化巡り、日韓が2回目協議 GSOMIA失効直前」 『朝日新聞』 (2019. 11. 20).

5) 각주 3의 NHK, 「韓国 協議打ち切りも 日本の輸出規制 WTOで物別れ パネル要求視野」 『静岡新聞』 (2019. 11. 20).